

사랑의 친구들 12번째 바자

빈곤어린이 돕기와 추석맞이 알뜰 장보기를 동시에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앞뜰 | 2009. 9. 19~20



추석 준비를 위한 실속있는 바자!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아이리어 생활용품**,
이삭희의 **중고물품장터**,
글로벌어린이재단의 **해외 유명상품**,
추석맞이 **명품 농산물**,
저명인사의 기증물품들을 만나보세요.

후원 : 글로벌어린이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외환은행 나눔재단

지난 2008 바자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아이코리아 ● (주)리얼컴퍼니 ● (주)예림양행 ● (주)까사미아 ● (주)나노카보나 ● (주)농협창동농산물종합 ● (주)다운타운레포츠 ● (주)더북컴퍼니 ● (주)더스파코스메틱 ● (주)동원F&B ● (주)동일드방레 ● (주)두산 ● (주)디스킨컴퍼니 ● (주)루펜리 ● (주)미스지콜렉션 ● (주)박흥근휴패션 ● (주)빙그레 ● (주)사라(앙스모드) ● (주)사마리 ● (주)성주디앤디 ● (주)손정원 ● (주)슈퍼리어 ● (주)신성에프앤씨 ● (주)신일 ● (주)신행물산 ● (주)실버텍스 ● (주)세인트나서널 ● (주)아가방앤컴퍼니 ● (주)아라벨라 ● (주)에스까다코리아 ● (주)아이아이 ● (주)제이아이콜렉션 ● (주)진도에프앤(우버) ●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 (주)크리스패션(PING) ● (주)클리오 ● (주)포송(파코라반) ● (주)한성에프앤씨 ● (주)한해자크리에이션즈 ● (주)K.H.J.lnc(강화숙부티크) ● 5.17가족 ● House Recipe Tea cake ● Hyun ● JK상사 ● L.J.L미용예술교육원 ● Lynx ● Macy's 서울지점 ● Pacific Islands Club Korea ● U.A.E대사관 ● UNIQUE ONE ● 가이랑 ● 구로지역자활센터 다우리 ● 그랜드힐튼호텔 ● 글로벌어린이재단 ● 금호전기(주) ● 길병원 ● 김광동 ● 김근태, 인재근 ● 김대중, 이회호 ● 김연주 ● 김영자 ● 김현숙 ● 김혜수 ● 노르웨이대사관 ● 노이의집 ● 노영혜 ● 농협중앙회 ● 뉴질랜드대사관 ● 다우리 ● 달개비 ● 대경상사 ● 대림산업(주) ● 대선제분(주) ● 동아제약 ● 라스포사 ● 리사 버시바우 ● 메가박스 세네플라스 ● 명원문화재단 ● 미국대사관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 바이오알앤디(주) ● 박삼구 ● 박영숙 ● 백봉현 ● 보우실업 ● 보해양조(주) ● 블루마린 ● 비둘기회 ● 삼양사 ● 생표식품(주) ● 살롬산업(주) ● 사라별 ● 설운형 ● 성북한마을봉사회 ● 소아코리아 ● 송학식품 ● 순창매실고추장 ● 스웨덴대사관 ● 스킨류 ● 신라구두 ● 신원NS ● 삼손 ● 삼정열 ● 아시아나항공 ● 아태여성아카데미 ● 안나미리아 ● 안윤정 ● 애경산업(주) ● 아제르 ● 여성신문사 ● 연근해수산 ● 영국대사관 ● 오스트리아캐슬 ●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 오온한부티크 ● 외환은행나눔재단 ● 윤장순 ● 이글린느코리아(주) ● 이레무역 ● 이삭희 ● 이영림 ● 이영희 ● 이영희 프리젠티 ● 이인호 ● 이종욱 ● 이진욱천연염색공방 ● 인데코 ● 인사모 ● 전남도청 ● 목련회 ● 정경애 ● 조선호텔 ● 종이문화재단 ● 지영선 ● 진말숙 ● 최금숙한복문화 ● 칠레대사관 ● 카타르대사관 ● 코코하브 ● 콜롬비아대사관 ● 타인스케어 ● 트로이조 ● 풍미식품 ● 한국고속해운 ● 한국네슬레(주) ● 한국미스터피자 ● 한국코카콜라 ● 한국콜마(주) ● 한명숙 ●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 한진택배 ● 현 경 ● 후원당 ● 황정원 ● 희망강랜드

발행인 : 김성재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09년 8월 / 통권 제 28호



5천만 국민에게 사랑과 희망을 준 할머니

김성재 ('사랑의 친구들' 회장)

어느 따뜻한 봄날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서려는데, 담장 옆에 염소새끼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집 주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자 이게 웬 황재냐 하며 얼른 염소새끼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만약 염소새끼가 아니라 어린아기가 있었다면 그래도 쾌재를 부르며 아기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갔을까? 왜 인간이기에! 이것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인간이기에"라는 수필집에 있는 글의 한토막이다.

옛날 아테네 거리에 한 철인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그런데 그 철인은 등불을 치켜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 대낮에 등불을 켜는데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

최근 나이든 농촌총각과 국제 결혼한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아이들도 이웃으로부터 차별받는다는 소식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돈 주고 여인을 사왔다는 부정적 인식이 낡은 죄악의 현실이다.

우리 민족은 본래 참으로 정이 많고 포용적인 민족인데 언제부터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많은 외침과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픔 그리고 미군정 때와 미군 기지촌의 부정적 경험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지구화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사

회에서 일하고 활동하려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가장 추한 '어글리 코리안'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CNN, BBC 등 외신이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란 뜻)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할 때 우리 언론들은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 표현이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보도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과 차별과 억압의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살아가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라고 부르는 국제결혼한 가난한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사랑과 꿈과 희망을 나누어야 한다.

얼마전 가난한 할머니가 연세대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갈등하고 절망하는 5천만 우리 국민에게 누구보다도 큰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웬일인지 부자들이 이런 기부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부자들도 이제는 줄부근성에서 벗어나 멋진 부자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사랑의 친구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랑의 친구들' 10년

-창립 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 모임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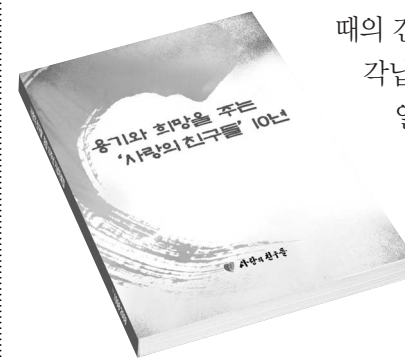
사랑의 친구들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기념 자료집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랑의 친구들' 10년』은 자료집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힘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 우리 사회에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아름다운 삶이 담겨있다. 사진으로 본 활동, 잘 알려지지 않은 창립 초기의 이야기를 다룬 좌담, 사업별 지원내용, 4,965명의 개인 후원자와 단체, 1,324명의 자원봉사자, 10년간의 자세한 연보, 이 모든 자료를 담은 CD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기념행사는 지난 5월 22일 사랑의 친구들을 10년 동안 후원하고 지지해준 후원자들, 자원봉사자, 역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에서 열렸다. 강경희, 강명순, 구춘모, 권택명, 김근태, 김성수, 김영자, 김인자, 김철웅, 김춘례, 김해성, 김현옥, 김효선, 김홍남, 민병욱, 박영숙, 성인숙, 송요선, 신필균, 유희영, 윤장순, 윤현봉, 이경림, 이금숙, 이민경, 이순례, 이옥자, 이혜숙, 이희호, 인재근, 조옥형, 진말숙, 최재천, 허인영 씨가 자료집 발간을 함께 축하하고 이계호 이사가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후원했다.



시대를 넘어서서 이어지는 나눔과 상생의 정신



사랑의 친구들이 생겨날 때의 긴장과 설렘이 생 각합니다. 얼마 전의 일 같은데,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니, 정말 흐르는 물 같은 세월의 속도가 실감납니다. 우리나라에 기부나, 나눔의 문

화가 낫설었을 때, 사랑의 친구들은 팔건고 나서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 체온을 나눠주기 시작한 용감한 단체였지요.

당시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명예총재가 되었기에 세상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축재의 통로가 되어 왔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 사회가 영부인의 움직임에 예민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지요.

또 한편 여성의 편에서는 여성운동가 출신인 영부인이 뭔가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늘 내조자의 연장선상에서 영부인의 역할은 그림자 내조나, 가정주부의 뒷바라지로 조명됐었고, 그렇지 않으면 '설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영부인이 되었을 때 여성운동가들은 그를 여성운동의 선배로 부르기도, 영부인으로 모셔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심리는 이희호 여사의 활동이 여성운동의 의미를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친구들의 친구들이 되어서 십시일반 돕고,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때 여성신문 편집장으로 재직중이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하는 일에 무척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영부인이 관여하는 곳이라서 혹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쁜 이미지가 생겨나지 않을까를 고려하면서 보도에 임했습니다. 경험 가장 많은 기자가 보도를 담당하도록 했고, 편집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여성언론으로서 사랑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 시대의 동지로서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친구들의 히트상품이자 연례행사가 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 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명절을 즈음해서 소외시설 방문하고 기부 물건 전달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설을 설 떡국거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자식 키우는 어머니 가슴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떡국 꾸러미들! 바구니에 떡국거리를 담으면서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이들의 차가운 가슴을 녹여줄 따끈한 떡국을 생각하며 스스로 훈훈해지는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이화여고에서의 바자회~! 생각만 해도 풍성하고 기쁨에 찬 대규모의 장터였지요. 이 역시 사랑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히트상품으로 지금까지 나눔문화의 명품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가슴뻗듯할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랑의 친구들은 이 시대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의 발길이 좀더 잦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시대를 넘어서서 이어지는 나눔과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고전이 아닐까 합니다.

- 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캠프가 있어 더 신나는 여름방학!

‘사랑의 친구들’이 지원하는 10개 연합캠프 진행

공부방 연합캠프는 빈곤, 결손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또래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연합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올해로 7번째 진행되는 연합캠프는 영화배우 문근영 씨의 후원으로 전국 10개 연합체가 여름 방학 동안 진행한다.

♥ 평택지역아동센터연합회

“나는야 나눔 CEO”

2009년 8월 10일~12일

참여공부방 :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포승지역아동센터, 장금등대지역아동센터, 십기지역아동센터, 해피홈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115명

♥ 곡성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뽀뽀(fun fun)한 캠프 시즌 2”

2009년 7월 30일~8월 1일

참여공부방 : 원동지역아동센터, 주산지역아동센터, 전남과학교육지역아동센터, 현정지역아동센터, 백곡지역아동센터, 석곡지역아동센터, 목석죽지역아동센터, 꿈나래지역아동센터, 곡성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208명

♥ 강서구아이사랑

“세계 속 우리들의 꿈을 찾아서”

2009년 7월 30일~8월 1일

참여공부방 :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꿈나래지역아동센터, 람원지역아동센터, 발음지역아동센터, 밝은지역아동센터, 성광행복한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주함지역아동센터, 화곡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300명



♥ 가톨릭공부방 모임

“Let's go together - 와우! 갯벌이다”

2009년 8월 5일~7일

참여공부방 : 강릉마리나지역아동센터, 동해해맑은지역아동센터, 동해꽃망울지역아동센터,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 도음미술공부방

참여인원 : 130명

♥ 안양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우리가 만드는 세상-지역아동센터의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

2009년 8월 17일~19일

참여공부방 : 한솔지역아동센터,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충훈부지역아동센터, 우리지역아동센터, 한무리지역아동센터, 사랑지역아동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동안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129명

♥ 청주 사랑의 한울타리

“떠나자! 바다 생태체험 사랑의 캠프”

2009년 7월 23일~25일

참여공부방 : 가경지역아동센터, 초록나무지역아동센터, 청주북부지역아동센터, 방주지역아동센터, 한우리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100명



♥ 광주전남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엄마, 아빠 어릴적 놀이체험 캠프”

2009년 8월 6일~7일

참여공부방 : 꿈터지역아동센터, 비아성가지역아동센터, 해돋이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임곡지역아동센터,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기쁜우리지역아동센터, 작은꽃들의집, 문흥골아이네지역아동센터, 나우리지역아동센터, 예로니모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사거리지역아동센터, 토마토지역아동센터, 진원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230명

♥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외 4곳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진짜 힘을 보여주마!”

2009년 8월 6일~8일

참여공부방 :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푸른꿈작은공부방, 봉아름쉼터

참여인원 : 200명

♥ 부스르기사랑나눔회 부산지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이 쑥쑥~별자리 찾아 떠나는 여름여행”

2009년 하반기

참여공부방 : 웅달샘지역아동센터, 성지지역아동센터, 성심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새사랑지역아동센터, 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 범일지역아동센터, 모덕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2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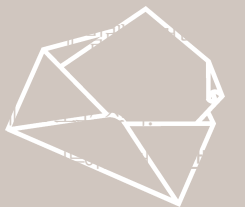
♥ 논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 웃는 행복충전 여름캠프”

2009년 7월 30일~8월 1일

참여공부방 : 강경지역아동센터, 성남지역아동센터, 성동지역아동센터, 소망지역아동센터, 하늘샘지역아동센터, 행복한흙스쿨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170명



노래도 영어로, 연극도 영어로, 이젠 미술도 영어로!

영어캠프, 아트 스쿨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진행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들이 영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7년 미래회와 함께 시작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1~2회 공부방을 방문해 다양한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나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참여기관		
8차(2009. 1~3)	38개 기관	287명
9차(2009. 4~6)	38개 기관	286명
10차(2009. 7~9)	46개 기관	344명

광주문흥골지역아동센터, 구암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꿈마을 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푸른학교, 꿈쟁이지역아동센터, 나눔지역아동센터, 노은지역아동센터,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음세대지역아동센터, 독립문교회 공부방, 동산중앙지역아동센터, 풀레라스지역아동센터,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광주),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익산), 문흥골지역아동센터, 미래랜드지역아동센터, 범동지역아동센터, 사랑샘지역아동센터,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산수중앙지역아동센터, 새날지역아동센터, 석남지역아동센터,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소망지역아동센터, 스스로함께지역아동센터, 에스더지역아동센터, 엘림지역아동센터, 예심지역아동센터, 예향꿈터지역아동센터, 원미지역아동센터, 월곡청소녀센터, 방과후교실, 전농방과후교실, 조은지역아동센터,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주사랑지역아동센터, 중랑재미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영현비전공부방, 천음방과후교실, 초지마을지역아동센터, 친구지역아동센터,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풀씨배움터, 행복을꿈꾸는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2월에는 청태산 숲채원에서 1박 2일의 영어캠프를 경험했다. 17개 공부방 145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부방에서 익힌 영어실력으로 노래, 율동, 연극, 시 낭송 등 다양한 발표회를 진행했고 영어캠프를 위해 김포외국어고등학교학생과 학부모 7명이 자원봉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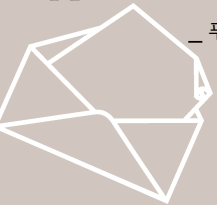
7월 29일 ~ 30일까지 9개 공부방 67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English Art School을 진행했다. English Art School은 영국 예술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모든 과정을 영어로 소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회화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숨겨진 나를 찾아서'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술교육을 접해보으로써 어린이들의 자아정체성 발견, 창의력 개발, 공동작업을 통한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했다.



영어 잘하는 언니가 부러운 아이들

- English Art School을 마치고

열고치 모양을 만들고, 구슬을 꿰어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고 퍼즐을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들이 간단한 영어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영어가 예쁜 대학생 언니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걸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 언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더군요. 맘에 드는 언니 오빠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되겠지요? 사랑의 친구들과 고맙습니다.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교사 임희진

우리도 연극연습 해볼까?

- 청태산 영어캠프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과 부푼 꿈을 안고 새벽같이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연습하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오자는 각오로 화이팅을 외치며 출발했습니다.

선생님께 꾸중도 듣고, 친구들과 말다툼도 하며 열심히 준비한 것들 모두 무대에서 마음껏 뽐낸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준비해 온 것을 보며 속닥속닥합니다. "우리도 센터 가면 저 미녀와 야수 연극 한번 해보자."

노래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연극 대사를 외워보겠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연극했던 센터에 부탁해서 정보교류도 해보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신나게~~ 잘 즐기고 왔습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기까지 힘써주시고 배려해주신 '사랑의친구들 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대전 나눔 친구들 잘~~ 도착했습니다.

나눔지역아동센터 교사 한진숙

설날 아침 따뜻한 떡국 한그릇 함께 나누어요

2009 사랑의 떡국 나누기 조손가정, 독거노인 가정에 3,000 바구니 전달해



‘2009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가 지난 1월 20일 광화문 정동제일교회에서 이희호 고문과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는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떡국거리를 담은 바구니를 준비해 전달했다. 바구니는 떡국 떡 3kg, 국거리용 쇠고기와 멸치, 국물용 감치미와 고추장을 함께 담아 보자기로 포장한다.

1998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11번째가 된 사랑의 떡국 나누기. 그동안 떡국 바구니를 전달받은 가정이 총 38,177곳, 액수로는 11억원에 달한다. 외환은행 나눔재단, 삼성, 공동모금회에서도 떡국 나누기에 함께 했고, 500여명의 개인 후원자가 1구와 3만원의 떡국바구니 모금에 참여했다.(후원자명단은 15면)

이날 떡국 나누기 행사는 전국의 3천 가정에 떡국

바구니를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밤이 늦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이희호 고문은 바구니 포장에 이어 마포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떡국을 점심으로 대접하고 인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직접 포장한 바구니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득찬 냉장고가 주는 기쁨

안녕하세요 은광지역아동센터입니다. 예쁜 노란 보자기에 묵~직하게 한아름 썬 떡바구니를 받으시곤 환해지시던 어머니들 얼굴에 제 마음마저 따뜻해졌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냉장고가 꽉~차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라며 좋아하십니다. 없는 형편에 매년 찾아오는 명절이 부담스럽기만 하시던 어머니 얼굴에 근심 한 개가 사라지는걸 보니 오랫동안 냉장고에 음식이 차있는 것에 아이들도 좋아했나 봅니다. 한가정 한가정 정성을 담은 선물보따리를 나누는 기쁨을 주신 사랑의 친구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은광지역아동센터

고추장으로는 떡볶이를?

처음으로 떡바구니를 신청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성스레 썬 보자기 속에 떡국, 국거리 고기에 멸치까지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고추장!!! 웬 고추장!!! 그랬는데 떡볶이 할 때 쓰라고 주신 것 아니냐는 소리에 또한번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떡국도 잘 먹지만 떡볶이까지 만들어 먹으면서 얼마나 신났을까를 생각하니 기뻐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주는 제 마음도 기쁘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할머니와 함께 한 떡국나누기

2009 사랑의 친구들 떡국나누기에 참여했다. 할머니가 사랑의 친구들 이사이고, 떡국나누기를 10년 이상 해 오신 덕분에 할머니께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내 일은 바닥의 쓰레기(비닐봉지, 자루, 테이프)줍기였다. 커다란 자루를 하나 들고 그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버린 바구니를 싸고 있던 비닐, 종이상자의 테이프, 내가 들고 있는 자루 등을 주웠다. 할머니께서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다. 나중에 떡국바구니 3천 개를 다 만들고 나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신 이유는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칼로 자르거나 힘을 줘서 꼭꼭 묶기는 무리이다. 그런데, 이 일도 계속 하다 보니 힘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떡국 바구니 옮기기를 했다. 자그마치 6kg이나 되어서 옮기기는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서 한 30개는 옮겼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면서도 열심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을 하면서 항상 이 바구니를 받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몇 시간이 흘러서 바구니 옮기기도 시들해졌을 무렵, 내가 힘들지도 않고 재미있는 최고의 일을 찾아냈다. 떡국바구니를 차에 실을 때 수를 잊어버리지 않게 숫자를 세는 것이다. 내가 숫자를 세고, 어른들께서는 떡국바구니를 옮기셨다. 내 목소리는 유난히 큰데, 언니오빠들은 내 목소리가 맑고 커서 좋다고, 또 어른들께서는 아주 똑순이가 들어왔구나 하며 칭찬해 주셨다.

드디어 작업이 다 끝났다. 할머니가 떡국을 전달하던 때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 곳은 아주 작았어. 계단을 내려갈 때 기어서 가야 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집에 다 도착해서 할 할머니께 떡국을 전달하는데,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야!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고마워서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그 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졌다. ‘더 잘, 더 정성스럽게 떡국바구니를 운반하고 숫자를 셀걸. 만약 내가 잘못 했으면 어떡하지? 못 받으신 분도 있을까? 이제부터라도 떡국 나누기 행사에 매년 참여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 자원봉사자 김해준

새로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2009 공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이들. 가족끼리의 서울여행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서울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초청행사. 올해는 전북 김제지역의 중부지역아동센터, 난산지역아동센터, 금송지역아동센터, 알찬지역아동센터, JG지역아동센터 어린이 88명과 교사들이 서

울을 방문했다. 2박3일 동안 어린이들은 코엑스 아쿠아리움, 외환은행 화폐전시관, 김대중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OBS경인TV, 남산타워, 롯데월드를 방문하고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서울초청행사를 위해 글로벌어린이재단에서 4,000달러를 후원했다.

시내외출도 번거로운 아이들이

우리 난산은 김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들어와야 하는 농촌지역입니다. 여기는 동네 장날에 김제 시내에라도 나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서울 여행을 간다고 하니 참 좋아라 합니다. 지역특성상 문화체험을 할 것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활력을 찾고 큰 도시를 보고 마음 속에 작은 꿈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 난산지역아동센터 교사 고은숙

우리 TV에도 나가나요?

저는 김제동초등학교 3학년 김환희입니다. 저희를 서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탔던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보았을 때 아름답고 신기했어요. 저에게 많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어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TV에 나가나요? 월하수 동안에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거 같아요. 사랑의 친구들 선생님 너무 감사했고요 안녕히 계세요.

미국에 계신 할머니께

— 글로벌어린이재단에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중부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5학년 고은유입니다. 이번에 서울여행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탐방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뮤지컬도 보게 해주시고 김대중도서관에서 체험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을 구경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었고 맛있는 금관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우리를 위해 환영파티도 해주시고 넓은 숙소도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즐거운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모두가 미국 할머니 덕분이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2009년 4월 24일 고은유 드림

여섯 번째 하우스 투어 열려



사랑의 친구들이 진행하는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기금 마련을 위한 하우스 투어가 지난 4월 열렸다.

이야기가 있는 집, 개성있는 집을 가진 주인은 집을 열어 일반에 개방하고 투어에 참여하는 이들은 참가비로 후원금 조성에 참여하는 하우스 투어. 투어 참여자들은 집주인의 감각과 취향, 그들이 속한 나라의 문화 등을 감상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

4월에 진행된 하우스 투어는 6번째로 주한미국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의 관저, 주한프랑스 필립 티에보대사의 관저, 종로구 부암동 유금와 당박물관이 집을 개방했다. 이번 투어에는 양국 대사의 초청으로 이희호 고문이 함께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의 기회도 가졌다.



배고픈 어린이 위해 이번 바자에도 최선을 다할 터

글로벌어린이재단 2009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1998년부터 올 바자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바자에 참여하고 사랑을 나누어준 사랑의 친구들과 떨어질 수 없는 자매단체인 글로벌어린이재단. 지난 12년간 조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한 금액만도 9억8천3백2십9만3천4백8원. 글로벌어린이재단은 그동안의 활발한 자선활동으로 제24회 마틴루터킹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11일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어린이재단 제11차 정기총회에는 19개 지부 3천5백명의 회원을 대표하여 홍콩과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전 지역에서 참여한 회원들로 붐볐으며 7월10일의 회장단 회의와 지부별 장기자랑, 11일에는 오전부터 열린 정기총회와 저녁에는 만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심정열 4대 총회장에 이은 정경애 현 총회장은 기금모금 만찬의 환영사를 통해 '세계 유일의 한인여성 구제 봉사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는 재단이 되고자 한다'며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인터컨티넨탈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열린 기금모금 만찬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연숙 전 장관은 우리나라

라의 전통 속에서도 십시일반이라는 미풍양속이 있다며 우리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는 아름다운 결정인 나누는 삶을 살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만찬에서는 김유자, 지희순, 이희숙, 정테보라 회원이 10년 근속 봉사상을, 심정열 전 총회장, 정좌희 전 부이사장, 이희숙 전 이사가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글로벌어린이 재단은 매년 4월 각 지부에서 회원의 날(GCF DAY)을 신설하고 회원들과의 친목과 봉사의 마음을 다질 계획이다. 또 내년 총회는 7월에 L.A에서 열린다. 방숙자 이사장은 글로벌어린이재단의 후원을 받는 어린이들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체험한 사랑을 되돌려 주는 참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정성을 다해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 이정원 (사랑의 친구들 사무총장)



◎ 2009년도 제 11차 정기총회 열려

김성재 회장 취임 및 새로운 임원 구성
10년 자원봉사자 감사장 전달도 함께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제 11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9일 우당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과 임직원,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했다. 특히 2009년은 사랑의 친구들 창립 10주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의미있는 해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새로운 후원 사업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랑의 친구들 창립과 더불어 10년간을 한결 같이 자원봉사에 온 윤장순, 김의정, 이종옥, 박선례, 김영자, 이해숙, 이진용, 구준모, 황순안 회원을 초대해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희호 고문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을 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발전하는 사회와 더불어 앞으로 더 밝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시도록 더욱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성재 이사가 새로 회장에 취임하고 이사진도 새롭게 구성했다. 두 번의 회장 임기를 마친 김성수 회장에게는 공로패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고문으로 추대했다. 지난 10년간 운영위원장 직을 맡아 수고해 온 윤장순 위원장에 이어 인재근 이사가 새로운 운영위원장 직을 맡았다. 퇴임하는 박금옥 사무총장에게도 감사패

를 전달하고 이정원 사랑의 친구들 부장이 새로운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사랑의 친구들 임원

회장 : 김성재(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고문 : 이희호

김남조(시인)

김성수(사회복지법인 강화우리마을 회장)

이사 : 김성재(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김순자(전 삼성화재 고문)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종량(한양대학교 총장)

김형민(신임·김안장법률사무소 고문)

민병준(광고주협회 회장)

박종렬(신임·변호사)

성인숙(전 청와대제2부속실장)

윤장순(우당기념사업회 이사장)

윤현봉(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계호(STC 회장)

이순례(학교법인 금성학원 상무이사)

이재중(신임·C&A논술아카데미교육그룹 이사장)

이종옥(5.17가족회)

인재근(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장)

최재천(신임·변호사)

◎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6월 9일에는 사랑의 친구들에 언제나 큰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을 옥인동 사옥으로 초대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 친구들과 함께 떡국 바구니를 만들고 바자 때에는 물품판매로 힘을 더해준 자원봉사자 강미영, 구준모, 김만용, 김성수, 김순자, 김춘례, 김영자, 박시연, 박주연, 박희양, 성인숙, 이종옥, 이진용, 이해숙, 인재근, 정옥자, 진말숙, 최순자, 최순희, 한서경, 한재희 씨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지난 10년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친구들 창립 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바자회도 함께 열었다.

◎ 미스터피자와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 캠페인’



◎ 까사리빙과 함께 하는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사진은
천응방과후지역아동센터의
새로워진 모습

한국미스터피자(사장 황문구)와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 캠페인’은 전국의 미스터피자 매장과 본사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공부방에 피자를 배달하고 사랑의 쿠폰을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09년 한해 동안 모두 250개 공부방에 피자를 전달하고 50명의 어린이에게 매월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피자가 온 날

미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자가 배달되어 오자 아이들이 어리둥절해 하며 왜 오늘 피자를 먹느냐고 하면서 모두들 맛나게 자~알 먹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고 미스터 사장님께서 피자를 보내주셨어” 라고 빵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애들아! 우리 다음에도 피자먹을 수 있게 음식 남기지 말고 골고루 먹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피자를 보내주신 미스터 피자 그리고 연결해주신 사랑의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역아동센터 다니엘과 세친구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는 인테리어 전문잡지 월간 까사리빙과 함께 하는 “Dream for Children” 공부방 인테리어 지원사업이다. 낡고 보수가 필요한 공부방 공간을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쾌적하게 바꾸어준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한달에 한 공부방을 선정해 4월부터 천응방과후지역아동센터, 독립문교회공부방, 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교실, 친구지역아동센터가 차례로 지원을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친구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주방을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공부방의 바뀌어진 모습은 매월 까사리빙에 게재된다.

◎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청소년 자아성장 프로그램인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한국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인자)의 전문상담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두차례 진행한다.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지기를 배움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넷 신청접수를 통해 참여 희망 공부방과 방문이 가능한 전문상담가를 연결해 8주 동안 진행한다. 2009년 상반기에는 나누미지역아동센터, 놀이세상지역아동센터, 독립문교회공부방, 모라지역아동센터, 포도나무지역아동센터가 4월~6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9 사랑의 떡국 나누기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경아	강다혜	강미진	강민혜	강병철	강익만	강종춘	강종희	강홍준	강환규	경옥호	고희숙	공영자	곽 현
구인옥	권오금	권용자	금제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김 옥	김경숙	김경순	김경영	김경희	김계숙	김광옥	김광우	김광우
김귀주	김근화	김길자	김난아	김남중	김남현	김동일	김명신	김모순	김미덕	김복례	김상수	김상우	김상우
김선경	김선미	김선애	김선은	김선희	김성미	김성재	김성중	김세원	김소령	김소민	김수정	김숙희	김순영
김순희	김시은	김양임	김영란	김영진	김영희	김옥봉	김옥희	김용남	김용란	김용선	김용호	김윤석	김윤임
김운정	김익신	김익정	김인규	김인숙	김인순	김재승	김재연	김중수	장일선	김주원	김주희	김지영	김진규
김창규	김창숙	김창실	김추미	김춘례	김하자	김행자	김향운	김현숙	김형자	김혜식	나근수	나정용	성인숙
남상일	남승희	남정수	낸시 김	노명옥	노영혜	노종만	노현자	대림산업(주)	도서출판 종이나라	또랑물	류연길	류영숙	류영숙
리차드 전	매트라이프생명보험	맥캐리하이츠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배경자	배정은	배진영	백경일	백남숙	백민정	백봉현	삼성	서경관	서줄리	선은실	손인자	손지은	송기태
송복호	송선경	송영관	송정숙	송지은	송춘섭	스테판 전	신갑순	신동운	신선련	신연화	신용희	신정자	신혜연
심미자	심복섭	안덕순	안미영	안재희	양 옥	양명자	양문선	박경수	양전국	양준호	양태석	양희복	여현숙
염보선	오금자	오승희	오은경	오진희	외환은행 나눔재단	우선희	우선희	우승아	우원식	유광훈	유석봉	유수진	유옥규
유은경	유지수	윤경열	윤경혜	윤영화	윤성환	윤순이	윤순희	윤영란	윤우식	윤정순	윤형원	이 옥	이강원
이경남	이경숙	이경순	이권우	이규환	이규훈	이길순	이명광	이문희	이미경	이미대	이보은	이부진	이상숙
이상채	이상희	이서현	이석범	이선자	이성복	이성애	이성희	이수연	이숙희	이순례	이순자	이순희	이연숙
이영림	이영아	이영애	이영애	이영자	이옥자	이운경	이운진	이원숙	이월란	이윤경	이익행	이인숙	이재룡
이재수	이재홍	이재현	이재현	이재현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준근	이진영	이진례	이진용	이준형	이혜동
이현주	이혜선	이혜숙	이화정	이희재	이희숙	이희순	이희호	인병선	임동원	임성진	임양진	임언택	임재용
임혜숙	임홍순	장명숙	장명희	장승연	장의순	장일선	전길환	전선희	전영숙	정 진	정규일	정기선	정노영
정도현	정동연	정동주	정미경	정성미	정재원	정재희	정정주	정종성	정춘강	정희원	조금숙	조남진	조병옥
조성숙	조아라	조영숙	조옥자	조옥형	조인순	조인혜	조춘식	조현진	종이문화재단	주민자	주민자	주신즈디자인	최복남
주일란	주일역	(주)종이나라	(주)케이웍스	(주)효성	지 순	지영선	차수희	채수정	채화석	최경순	최대균	최복남	최순자
최순희	최애경	최영자	최영준	최원원	김경희	최윤희	편다슬	편인숙	하늘꿈지역아동센터	하유원	한국전력공사 부녀회	허 장	허동환
한건운	한규무	한문선	한미자	한선희	한순애	한옥순	한운석	한인애	한지영	한현옥	함정원	CHOKYU	
홍기문	홍기원	홍라희	홍영미	황귀배	황선희	황숙현	황순안	황순택	황우권	Aida Almaainah			

사랑의 친구들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신애	강태형	공병걸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권오금	권태미	권희선	글로벌어린이재단	김문규	김병훈	김순자	김원기
김용식	김인섭	김재숙	김정현	김종량	김진규	김태희	김형준	김혜정	노라노	노윤화	도서출판 종이나라
문근영	문봉선	미래희	미스터피자	박 승	박명주	박병곤	박성훈	박아상	박종렬	박준연	박혜선
배국진	배민영	배숙희	배주영	백봉현	서원택	서줄리	성민재	성인숙	성인숙	송도순	송학재단
신선련	여성숙	연합뉴스	염혜경	오경미	유봉란	윤 승	윤성삼	윤석남	윤정순	이계영	이계호
이민희	이상미	이상원	이선옥	이선희	이성희	이아정	이은숙	이재준	이종욱	이준선	이철재
이혜경	이희호	인재근	임언택	임형국	임희선	장정숙	장원초교 4학년 3반 어린이들	정수인	정수진	조라미	조옥형
조재형	지한용	천민덕	최영희	최재승	최재천	최해경	포토앤컬처 하원호	한미향	한신남	한양대	한은경
합명회사삼하사	현순실	현진옥	홍선주	환경관리공단	황은경	황정원	황희주	Deborah Myers	Tom Coyner		

물품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계호(기념자료집 발간 모임)	(주)대상(사랑의 떡국나누기)	대한항공(사랑의 간식 나누기)
외환은행 나눔재단(클래식 공연)	(주)토시드(어린이뮤지컬)	아시아나항공(사랑의 간식 나누기)
김대중 도서관(2009 서울초청행사)	홍수정(2009 서울초청행사)	까사리빙(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롯데칠성(2009 서울초청행사)	(주)미스터피자(사랑의 피자 나누기)	신한은행(하우스 투어)

故 김대중 前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